

부록 2: 조선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I. 도입: 생존자 증언의 의의

조선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할 때 생존자 여성들의 증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50 여년이 지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이 문제에 대한 깊고도 깊은 '침묵'을 깨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생존자 증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이 문제를 지배해 온 '침묵'이라는 현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50 여년간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인정, 사죄와 보상이 없었다는 점이 이 문제에 대한 '침묵'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여기에는 동경재판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연합국' 측의 시선, 즉 한국, 타이완, 관동 조차지 등과 같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피지배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국제적 맥락도 중요하다.

둘째, 연구의 빈약함도 침묵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위안부' 사건에 대한 여하한 식민지 정부 문서나 군대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문서의 의도적 파기, 은폐, 독점이라는 이유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빈곤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학자 및 활동가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여 왔다.

셋째, '위안부' 희생자를 다시 한번 희생자화하는 남성중심적 성(sexuality) 규범 역시 침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잔인한 성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여성들이 그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그녀를 수치스럽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성중심적 성과 가부장적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은 무엇이 무엇을 선행하기보다는 서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침묵을 구성해 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생존자 증언은 이러한 여러 층위의 침묵을 뚫고 나온 용기와 분노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제까지 세계의 역사에서, 또 여성의 역사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 거의 잊혀져가는 식민지, 제국주의, 군국주의 경험에 대한 거대한 '망각'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기억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한국에서 문서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설사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식민지 당시 역사서술의 주체가 일본이며 이 위안부 기획의 도모자 역시 일본국가였으므로 역사서술과 자료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소위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가 주로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적 문서 및 군대 문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가 그 증거마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은 공식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하였다 (1992년 당시). 한국인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일본과 한국간에 발생한 사건이며 식민지 역사의 일부이자 전쟁범죄이다. 한국인 생존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관계에서 더 열

세의 나라에서 태어나 피해자가 되었으며, 여성이었으므로 남성 군인의 성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주변의 주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서중심적, 일본주도적 증거에서 가장 대항적인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는 다름 아닌 (한국인) 생존자 여성들의 말과 기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약자인 대다수 하층 계층, 여성, 노인이 어떻게 역사적 기록에, 국제적 정의 구현에 '주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존 '위안부'들의 증언이 갖는 막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약하다. 약하다. 많은 경우, 기억이 사라지고 있으며, 언어는 단편적이며 신체적으로 병들어 계시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 이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현재 이들 생존자는 대부분 80세 가량의 고령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국(남북한 포함)에서는 400 여명 정도가 자신이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신고하였다. 이 중에서 남한의 현재 생존자는 155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그들의 증언이 증언집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출간 중인 생존자는 67명이다.¹⁾ 나머지의 생존자 중 대다수는 건강, 기억의 훼손, 처해있는 상황, 본인의 회피 등의 이유로 증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남한의 연구자들을 지난 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10년 동안 '위안부' 생존자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²⁾ 부록 2에서는 그 동안 축적된 67명의 생존자의 증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안부' 피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만연한(prevalent) 피해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크게, 강제 동원, 위안소에서 피해, 그리고 패전 직후의 피해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그 아래에서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뉜다. 이 항목은 본 법정헌장(charter)에 규정(2조)에 기반하였으며, 한국인 생존자 증언에 입각하여 다소 재구성한 것이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수많은 증언을 모두 대변하지 못하고 주로 전형적인(typical)한 경우의 증언을 대변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위안부' 피해는 패전 직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것으로서 가난, 질병, 사회적 낙인, 소외, 수치, 침묵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피해상을 보이지만 이 기소장에서는 패전 직후까지만 다루고 있음도 밝혀둔다.³⁾

문헌

- 1) 67 명의 증언은 그간 한국에서 출간되거나 출간 중인 다음과 같은 5권의 증언집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 & 한국정신대 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Vol.1-3, 1993; 1997; 1999; 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 & 한국정신대 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서울: 한울), 1994;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 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IV』, (서울: 풀빛), 2000 근간.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인용되는 증언은 증언집 vol. no, 출판 연도와 페이지만을 표시하기로 하겠다.
- 2) 조선인 '위안부'는 물론 한국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법정의 한국증인이 되는 송 (일본)나 하상숙(중국)과 같이 외국에 거주하는 생존자들도 있다. 이들에게 외국 거주라는 현재는 '위안부' 강제 연행에 의한 다diaspora(diaspora)라는 '위안부' 피해의 한 측면을 보여주 한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증언집으로 출간되어 다. 정신대 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4.
- 3) 한국 생존자의 증언1집의 영문 번역은 Keith Howard (ed.) 『True Stories of the Korean Co

현재의 법정에서, 한국인 증인은 다섯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명에 국한하지 않고 67명의 증언을 포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생존자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증인이라는 판단에서이다.⁴⁾ 다시 말해, 이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피해 중에서 전형적인 내용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⁵⁾ 사실상, 현재의 생존자는 많은 죽을 기회를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강인한'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위안부' 당시의 생존의 위기, 귀환 과정의 생명의 위협, 귀국 후 삶의 열악함이라는 많은 위기 상황을 넘어 현재를 숨쉬고 있는 증인이다.⁶⁾ 이들의 기억을 통하여 수 없이 죽어간 한국인 '위안부' 피해를 함께 경청하고자 한다.

II. 강제동원에서 나타난 범죄와 피해

1. 취업 사기

부록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사기는 '군위안부' 연행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취업사기에 속아서 '위안부'의 덫에 걸려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친언니와 함께 연행된 김소란의 경우, "병원에 봉대 같은 것 씻어주고 치워주고 그러면 한 달에 돈 얼마쯤씩 받는단다, 한 일, 이년 별어가 와 잘 살면 되잖아"라는 말에 '위안부' 모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김소란은 필리핀 마닐라 근방에 도착하여서도, "나는 병원에서 일한다니까 병원만 찾아봤어요. 그런데 큰 병원이 있더라구요. 이제 내 일할 자리구나"라고 할 정도로 강제동원의 이유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⁷⁾

1941년 열 여덟의 나이로 끌려간 신현순의 경우에도, 조선사람과 함께 찾아 온 일본사람이 "간호원 시험보라고" 해서, 보국대로 가느니 간호원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신현순은 배타러 가면서도, "간호원 가는 줄 알았지, 적십자기가 달려 있는 '헤이요마루'라는 병원선"이었다고 기억한다.⁸⁾ 이러한 사례들은 일제가 조직적으로 간호부라는 군대구성원의 지위를 미끼로 강제성을 은폐하고 '위안부' 모집을 용이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⁹⁾

Women」, (Cassell; London)으로 출간되어 있다.

- 4) 김복동, 김군자, 하군자, 송신도, 박영심과 같은 5명의 한국인 증인은 본 부록에도 분석되고 있 참고자료에 인생 구술(life story)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 5) 57명이라는 숫자는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에서 '전형적' 유형을 알아보는 데 유의미하며, 특히 이들의 증언이 모두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인용서적)
- 6) 위기의 단계 설정은 이수현, "몸에 각인된 역사: 일본군 '위안부'의 육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 기소장 참조자료를 참조함.
- 7) 김소란의 증언 (증언 3집, 1999:49-51).
- 8) 신현순의 증언 (증언 3집, 1999:296).
- 9) 일제의 통치의 결과로 빚어진 농촌 지역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소녀들을 취업 등을 미끼

하지만 이 여성들이 단순히 속았다고보다는, 협박과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특성이 사기와 결합되어 있다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위안부' 모집 취업사기가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군과 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942년경에 연행된 김은례는 다음과 같이 연행당시를 증언한다.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를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고 통고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3년 만 일하면 돈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옥실이(김은례)를 어디 내보내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게 하라“고 하고 갔다고 하대. 만일에 ”도망가고 없으면 우리 식구 모두를 총살시킬 줄 알라“면서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 어떡해?... 나도 이국 땅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데.¹⁰⁾

다음의 예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자신이 부유한 가정의 딸로서 대신 연행되었던 경우를 보여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열다섯 살 때, 먼 친척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던 최화선(가명)에게 동네 이장이 접근하였다. 이장은 “너 공장에 가면 이제 참 좋다. 이 집 저 집 땀기면서 사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좋은 데로 보낸다”고 하여서 그 길로 끌려가게 된다. 이장이 태우는 차를 타고 대구까지 와 보니 이장이 잘 아는 “변화하게 사는 집”에 당도한다. 그 집 엄마는 이 할머니에게 “오늘부터 너는 최화선으로 있어야 한다. 그 딸 대신 보낸다”고 그래, 그 집 넷째 딸이 최화선이라, 그 딸이 내 또래였어”라고 술회한다.¹¹⁾ 이후 할머니는 ‘최화선’으로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게 된다. 이러한 증언은 ‘위안부’ 동원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적 할당과 같은 조직적 집행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취업사기는 그러한 조직적 배분이 집행되는 표피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다른 한편, 표면적으로는 취업사기인데 그 내면에는 위에서 살펴본 조직적 배분과 인신매매 수법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사람 집에서 식모노릇을 하던 열 일곱 살이었던 김옥주에게 하루는 그 집 주인인 일본군인 마쓰모도가 “인천으로 일하러 가겠느냐”고 권유하였다고 한다. 당시 김옥주는 한 달에 2원을 받고 있었는데, 8원씩 주는 데를 소개받으면서 세 달치 월급 24원을 선불로 받게 된다. “집에 이십 원 주고 어매에게 줬지, 나는 사원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놈 가지고 옷도 해 입고.” 그러고 나서 “마쓰모도는 일본 남자 둘에게 날 넘겼어. 그 일본남자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고.” 할머니는 “내중에 알고 보니 마쓰모두는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있으면

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한 경우 외에도 간호부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군‘위안부’로 동원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1939년에 이미 24명의 일본적십자 조선본부 소속 간호부가 소집을 받아 북부중국의 전선으로 나간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고비를 맞게 되었을 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백의천사(白衣天使)라는 미명으로 전쟁노동력으로 동원했다.

10) 김은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123-124).

11) 김은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194).

서도 속인 게지"라고 증언한다.¹²⁾ 이렇게 김옥주가 받은 선불로 미루어 보아 김옥주를 대상으로 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인 쇼조(특무상사)였던 집주인의 취업사기는 김옥주에 대한 인신매매와 동시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연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군위안부' 취업사기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증언에서 볼 때, '군위안부'의 동원은 군, 경찰, 행정조직 관계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증언 3집에서 볼 경우에, 군복 입은 사람(이남이), 군복입은 한국남자(김군자),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들(김옥주), 일본인 순사(조순덕), 이장(최화선), 일본인 시청직원(김유감)과 같이 군과 관, 공무원이 '위안부' 징집에 직접 활동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취업사기를 '개인업자'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 취업사기를 개개인의 취업사기로 개념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상에서 살펴 본 '취업사기'는 단순한 사기라기보다는 힘에 의해 가해진 협박과 결합되어 있다. 즉, 본인과 가족이 반대하면, '목숨을 없앨 수도 있는' 권력에 의한 '사기'라는 것이다.

특히, 이상에서 살펴 본 취업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거짓정보, 정보부재, 정보은폐라는 상황이다. 즉 자신이 취업할 장소, 조건, 책임자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그러한 사기가 10여 년 동안 수만을 헤아리는 어린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는데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은폐되고, 조장되고,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취업사기'를 취업사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폐한 조선의 경제상황, 둘째, 징병 징용과 같이 전시동원체제라는 맥락, 셋째 당시의 군과 행정기구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적극적 지원. 요컨대, 이상의 취업사기는 식민지 전시 상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행해진 '취업을 가장한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납치와 유괴

증언에서 볼 때, 납치와 유괴와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어 강제동원된 경우가 취업사기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행방식이었다. 납치란 취업사기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를 말하며, 유괴는 유혹을 통하여 끌고간 경우로서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 사기와 거짓말을 통해 시작된 조선여성들에 대한 '위안부' 동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전쟁터에서 성노예들에 대한 요구가 커갈수록 노골적이고 공격적이 되었다. 납치에 참여했던 전 일본장교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노예사냥이나 다름없었다. 그 중 한 경우 심달연은 연행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때가 열 두살 먹었던가 열 세살 먹었던가 그 정도 됐지 싶다. 우리도 농사 조금

12)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96).

12살 13살?

지었는데, 일본사람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니면서 다 뺏어가예. 그래가 목을 게 하나도 없다카이, 그래가 언니하고 둘이서 나물캐러 나갔다카이... 그걸 뜯고 있는데 차가 오디만은, 모자 쓰고 커다꿈한(커다란) 사람들이 두어 명 내리데, 내려서 쫓아오디마는 우리 광주리를 톱톱 차뿌리는 기라. 그라디만 차를 타라꼬 그라는 기라. 그래 둘이 고만 끝안았어예. 그때 들에 딴 사람은 없었어예. 그라더니만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언니를 머리꺼디(머리채)를 이래 쥐고는 차에 끄잡아 없데. "언니야" 하고 내가 막 울면서 그카니까 쫓아오디만 내조차도 좇어 올리버리데."¹³⁾

지. 그때는 뭐 나이가 어리고 내가 인물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고 그날 순갱(순경)이 막 때렸어, 내놓으라고. 숨었지, 난, 안 갈라고, 내놓으라고 [아버지] 코에다가 주전자 물 넣고. 그게 나뿐이 아녀, 옛날에는. 나이 어렸어도 무조건 시집들을 보내고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인자, 아버지, 나는 간다고. 그래 [떠나고서]. 며칠 안 함께(가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두드러 맞고 그래서.”¹⁷⁾

이 경우는 강제 연행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가족의 파괴를 동반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납치의 경우, 관의 압력과 정보 은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강제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식민지 사회의 경제적 피해의 상황에서 여성들을 ‘유혹’하여 유괴한 경우도 빈번히 나타난다. 이러한 연행방식에는 위의 경우들처럼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납치와 연속선상에 있다. 황순이가 그 중 한 경우이다. 열 세 살에 “친구 셋이서 나물 캐러 갔는데 일본 남자하고 한국 남자 하나가 쪼그만 도라크 차에서 내려 과자를 주면서 “따라가면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 해주고, 뭐 과자도 주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한다.¹⁸⁾ 다음은 각각 최갑순, 김화선의 증언이다.

“가난하게, 가난하게, 쌀 한번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 때 잡혀갈 때만 해도 열 여섯 먹었는데, 순사가 왔어. 그렇게 잡아서 구국대를 보내려고 한다고.... ‘따라갈래?, 아 따라가면 곰신(고무신)도 사주고 호근(하얀) 쌀밥도 너 먹고 자른 대로 먹고’ 이렇게로, 가자고.”¹⁹⁾

“카라멜하고, 그거 뭐야, 먹을 것 주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해서 갔지. 그때 먹을 거 없잖아... 농사도 다 뺏기고 뭐 있어.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하지. 배금 타 먹다시피하지, 굶다시피하지.”²⁰⁾

이렇게, 가난은 ‘위안부’ 연행이 계층적으로 주로 하층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소장 부록 1-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별 여성의 계급적 상황보다는 더욱 당시 한국사회의 경제적 수탈의 심화, 특히 농촌 사회의 피해라는 전반적 경제상황이 중요하다. 가부장적 가족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가장 늦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여성’이라고 할 때, 이러한 피해한 경제상황의 맥락은 여성을 보다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위치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한국 여성은 가부장제와 식민주의라는 이중의 압제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납치와 유괴는 군인과 행정조직을 동원한 폭력성과 그것에 대한 정보 통제가 앞에

17) 김영자의 증언 (증언 4집, 2000).

18) 황순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22).

19)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20) 김화선의 증언 (증언 4집, 2000).

서 살펴 본 '취업사기' 보다도 더욱 강력하다. 따라서, 이러한 동원방식은 식민주의 지배 하의 일본의 무단통치 없이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동원 방식이다.

3. 인신매매

'위안부' 동원의 또 다른 유형인 인신매매는 많은 경우, 위에서 서술한 취업사기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업사기와 결합되지 않은 인신 매매의 피해를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조카를 보아주고 있다가 '위안부'로 연행된 하영이(가명) 할머니가 그 중의 한 경우이다. 하영이가 열 다섯살 되던 1936년경, 이웃의 한국인 아줌마는 "내가 한국에 데려다 줄게, 나도 한국에 나간다"고 하면서 2, 3일 후에 어디로 나오라고 했다. 배 타는 곳으로 나를 데려온 아줌마는 그곳에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 인계받은 아줌마는 일본인이었다.... 그 곳에서 큰 연락선을 탔는데 배 안에는 나만한 여자애들이 십여 명 더 있었다.... 그 후 안 일이지만 그 여인이 대만까지 날 데려가 그곳에다 나를 팔아먹은 것이다"라고 술회한다.²¹⁾

이외에도 취업사기와 병행하지 않은 인신매매는 아버지와 남편과 같은 가족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가 나타난다. 날마다 술에 파묻혀 사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조남례 할머니는 "아버지는 이웃에 살던 한국인 남자에게 돈을 받고 나를 팔아 넘겼다. 아버지는 돈밖에 몰랐다"고 증언한다.²²⁾ 김창연(가명)의 경우에는 두 번의 인신매매 과정을 겪는다. "우리 동네에 연극[단]이 들어왔어요. 창극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의붓아버지가 삼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집에서 [다시] 나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본사람이 사러 다니는 모양이지. 우리 한국사람이 왔어요. 모집해 가지고 하는 포주가 있어요. 일본 가는 포주가 있어요."²³⁾

이러한 가족 인신매매의 배경에는 앞에서 지적한 조선사회 전반의 피폐한 경제생활, 또 경제적 피폐와 함께 한 도덕적 붕괴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딸, 부인에 대한 여성천시 현상 또한 이러한 인신매매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 유독 가족에 의해 행해진 인신매매만이 인신매매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인신매매가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그것은 앞에서 본 취업사기나 납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사기, 납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종종 대규모 인신매매단이 연루되어있었다.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군'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에서도 대규모의 처녀유괴단이 생겨났다. 이는 일제치하에 황폐될 대로 황폐된 조선 농촌에서 중일전쟁의 확대로 그 수요가 급증한 일본군 '위안부'의 자원이 양산되고 있었으며 그 조달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가난한 농촌 소녀들을 대규모로 유괴하여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방법이 성행

21) 하영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78).

22) 조남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265).

23) 김창연의 증언 (증언 4집, 2000).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유괴단들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의 대부분은 10대 미혼녀들이었다.²⁴⁾ 일본은 이와 같이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괴조직들의 범죄활동을 통하여 조달된 조선의 여성과 소녀들을 중국 등지의 군'위안부'수요에 충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강간, 상해

증언에 의하면, 강제 연행의 과정에서 강간이나 상해가 시작된 경우가 나타난다. 다음은 각각 김순덕, 강덕경, 홍애진의 증언이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니 버스같이 생긴 차가 와서 우리 일행을 태워 여관으로 갔다.... 첫날 밤 나는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 그 군인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 피도 나오고 무서워서 내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그 군인은 내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무 때 당해도 당하니까 그런 줄 알라며 달랬다. 우리 여자들은 매일밤 계급이 높은 군인들의 방으로 이곳저곳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²⁵⁾

“잡혀서 트럭에 타고 보니 나뿐이었다. 트럭에는 헌병, 운전병, 나 모두 세사람뿐이었다. 운전병 옆에 앉아서 가다가, 그 헌병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날 내리라고 해서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천지를 모르게 캄캄한 밤이었다. 거기서 그가 나를 덮쳤다.”²⁶⁾

“우리는 군용배를 타게 되었다. 그 배는 상해로 향하는 배였다. 상해로 가는 배 안에서 어느 한 장교가 나를 끌어내고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려 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반항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나의 옷은 조금씩 찢겨져 나갔으며, 결국은 알몸이 되었다. 그 장교는 큰 칼을 옆에 두고 위협을 하면서 일체의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⁷⁾

증언에서 연행의 과정에서 행해진 폭행등으로 인한 상해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인 이득남(가명)과 심달연의 증언이다.

“그 남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네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데려올 때 든 기차비, 여관비 다 내놔라’하며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 나는 기절을 하였다.”²⁸⁾

24)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인신매매조직의 활동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될 자원을 확기 위해 방기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의 반월루(半月樓)·유명루(遊明樓) 등 유곽에 팔려 40여 명의 피해자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것이 판명된 경우만도 20세의 조(趙)모를 산동성 담경(鏡)위안소에 500원에 판 것을 비롯하여 12명이나 되었다. 이 사례는 조선에 옮겨진 일본식 유농촌 소녀들을 유괴한 다음 중일전쟁으로 중국에 설치된 일본군위안소로 전매하는 중간 연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강만길(1997) 앞의 논문, 22-23.

25) 김순덕의 증언 (증언 1집, 1993:49).

26) 강덕경의 증언 (증언 1집, 1993:277).

27) 홍애진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46).

“6학년 아이들 학교서 나오는 거를 마카(전부) 차에 조 실어서 데꼬갔[어예]. 막 아이들이 죽기살기로 우니까. 구둣발로 디리(마구) 차뿌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울리(울려)요. 구둣발에 거 한 번 채이면 얼마나 아픈지요 말도 모(못) 해요. 그거를 래 맞고도요. 아이들 살점이라서 견디지, 요새 걸으마 골병이 들어가 못 살구마.”²⁹⁾

이렇게 ‘위안부’로의 강제 연행 과정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이후 이들이 겪을 피해와 고통을 예견하게 한다.

III.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와 피해

1. 반복적, 지속적 강간

일본군 ‘위안소’에서 자행된 가장 핵심적인 범죄와 피해는 이른바 ‘위안’행위에 놓여져 있다. 그 ‘위안’이란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강간’을 의미한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대 여섯 명에서 수십 명씩을 강간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년을 살았다고 할 때, 이들이 당한 강간의 수는 수만 번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반복적, 지속적 강간은 모든 증언에서 만연하게 나타난다.

“일요일에는 군인들이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쉴새없이 달려들었다. 하루에 20명, 30명, 40명....., 그걸 누가 다 세는가.”³⁰⁾

“하루에 상대한 군인 수는 30~40명쯤이었으나 공일날에는 군인들이 팬티만 입고 밖에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았다.”³¹⁾

“다른 데서 군인들이 오면 밤에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난 거기서 ‘하루에’로 불리웠다. 군인들이 이름을 부르면 여자들이 담요를 들고 군인을 따라 나가야 했다. 캄캄한 야산에서 몇 사람인지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당하곤 했다. 너무 당해서 밑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으니까 데리고 간 군인들이 끝다시피하여 천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 때의 비참한 느낌이란 정말 말로 다 못한다.”³²⁾

“군인은 사무실 거쳐서 앞마당에 방방이 줄을 서. 전체 한 100명 넘게 서서 기다려. 바글바글하지 뭐.... 많이 올 때는 한 사십 명 받나 봐. 췌지 못해. 끼는 거 저거하니

28) 이득남의 증언 (증언 1집, 1993: 202).

29)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47).

30) 하순녀의 증언 (증언 1집, 1993: 78).

31) 황금주의 증언 (증언 1집, 1993: 100).

32) 강덕경의 증언 (증언 1집, 1993:298).

까 아파. 아픈 데 어디 생각해 주나. 나만 아팠지.”³³⁾

“군인은 보통 하루에 열 명도 더 받지. 열댓 명씩 한 스무 명씩 낮에도 받고, 오후에 병사들이 많이 오지, 신발도 안 벗고 덤비는 거야. 신발도 옷도 벗을 필요도 없고 잠자리하고 가고 그랬어. 아유 그 일은 잊어버려야지.”³⁴⁾

“하루에 열 댓 명이서 그렇게 겪는가 봐. 아유, 그런 어리니 무리하게 당했으니까 피가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갔고 며칠 아파갔고 오줌도 못 똥어. 막 그냥 울고, 밥도 못 먹었고, 얼마나 참말로 죽겠던고.”³⁵⁾

“이틀 뒤부터 군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프놈펜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군인들이 왔어요. 처음 온 군인은 낮은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프놈펜에서는 군인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면 20명, 적으면 10명... 프놈펜에서는 찾아오는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밖에서 줄 서 있으면서 ‘쫓토’ ‘쫓토’(어서, 어서)하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했어요.”³⁶⁾

“거기는[중국 해남도] 주둔지로 전부 군인, 그것도 육군이였다. 어찌나 바글바글한지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십 명씩을 상대해야 했다.... 보통 하루 사오십 명씩이나 됐다. 옷을 입고 벗고 할 사이도 없었다. 문 밖에서 줄을 섰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또 들어오곤 했다. 한 사람에 5분, 10분도 채 안 걸렸다. 어떤 사람들은 각반을 풀지도 않고 바지만 내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³⁷⁾

“군인들이 아홉시부터, 여자들 방문 앞에마다 쭈-욱, 질(제일) 앞에서 서는 놈은 이 밑에 감은 거 있어.³⁸⁾ 그걸 풀르고는, 여여 (바지 지퍼쪽을 가리키며) 여그만 끌고는(열고는), 옛날에는 군인들이 여그다 뭐 형젼대기 감아 가꼬 땡깁게.³⁹⁾ 그럼, 문 앞에 께로 쪽 서 가꼬는, 얼릉얼릉 허구 나오라고, 그러면 얼른 허구는 그 놈 일어나구, 허-- (한숨) 그냥 다 받을 때 까장... 아뭇튼 저녁밤 먹으러 가요. 인짜 또 여섯시가 되면 저녁밥 잠깐 삼십 분동안 밤을 먹어요. 막 나래비로 섰으니까. 사람들이... 저녁 내 하면서, 저의 마음대로, 저년 내 얹어놓고 얹어져라, 뒤집어져라, 모 무릅 꿇어봐라, 뭐 똥귀덕에도 하고 (한숨을 쉬며), 하이유, 아주 사람 죽어죽어 아주.”⁴⁰⁾

33) 김군자의 증언 (증언 3집, 1999:80-81).

34)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203).

35) 황순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26).

36) 이남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8-29).

37) 하영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82).

38) 각반을 뜻함.

39) 일본 군인의 속옷 훈도시를 묘사하고 있음.

40)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위안소'를 떠나 일종의 '출장 위안'을 한 경우도 나타난다.

“여자들 10명이 통통배를 타고 갔다... 이런 섬에서는 나무 아래 커튼을 치고 일을 치렀다. 여자 없는 이섬 저섬을 돌아다니면서 군인을 상대하는 것이다. 가면 한 열흘 정도 머물렀다.”⁴¹⁾

“보통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하루에 15명정도 상대해야 했지만, 주말에는 말할 수도 없이 많았다. 50명은 넘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싱가포르) 가끔씩 산 속 깊은 곳의 군부대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군인들이 호위하고 위안부 10명쯤이 함께 갔다. 천막 하나를 임시 위안소로 만들어놓고, 천막 속을 합판으로 나누어 서너명씩 들어가도록 했다. 군인들이 하도 많이 들이닥쳐서 모두 급한 나머지 바지만 내리고 일을 보고 허리끈을 매면서 밖으로 나가면 다음 사람이 금방 들어왔다. 우리는 아예 다리를 개구리 모양으로 오그리고 양 옆으로 벌려 비스듬한 자세로 침대에 앉은 겸, 누운 겸하고 그대로 군인들을 하루종일 받았다.”⁴²⁾

아소(麻生撤男) 군의관의 보고에서, '군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의 성병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공중변소'라고 표현되고 있다.⁴³⁾ 여기에서 '군위안부' 체제가 '위안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인간 존엄성의 박탈 체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 중 여성에 가한 폭력과는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 그러한 전쟁에서 여성에 가한 폭력은 '적군' 혹은 '적군의 여성'에 가하는 공격이었다.⁴⁴⁾ 조선 여성들은 일본군인의 성욕과 긴장 해소를 위한, 또한 자국민과 현주민의 강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다. '위안부' 여성의 존재(beings)는 전쟁 중의 적의 위치라기 보다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수 물자(military supply)'였다.

2. 노예화: 감금과 감시

'노예화'(enslavement)는 위안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군위안부' 여성들은 어떠한 종류의 자주권도 박탈당하고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노예 상태에서 생존하였다. 사실상 여기에서 살펴보는 강간과 폭력, 질병 등이 이미 노

41) 강무자의 증언 (증언 2집, 1997: 57).

42) 김복동의 증언 (증언 2집, 1997: 91).

43) Tetsuo Aso, "Karyubyō no sekkyōku-teki yoboho" [Methods to prevent venereal disease](1936),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자료집 2, p.85.

44) Renata Salecl, "The Fantasy Structure of War," in *The Spoils of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4; Alexandra Stiglmayer, ed.,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참조.

에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통하여 나타난 '군위안부'의 노예상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폭격으로 방공호에 가는 것 말고는 감시가 심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위안소 밖으로 나가면 때린다고도 하고 죽인다고도 해서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했다.”⁴⁵⁾

“나와 부산에서 같이 잡혀 위안부로 오게 된 순자가 영도지리를 잘 안다고 해서 같이 도망을 시도했다...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잡혔다. 잡힌 후에 총끝으로 엉치를 세대나 얻어맞고 앞으로 고꾸라져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맞아서 폭 패인 엉치의 상처가 굵아서 열이 뿔뿔 나 똑바로 드러눕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군인들을 계속 받게 하였다.”⁴⁶⁾

“하루에 몇 번은 헌병들이 경비를 돌고, 전신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거나 여자들의 도망이나 자살을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체념하고 살았다.”⁴⁷⁾

“우리를 데려간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가 사복을 입고 문 앞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나갔다.”⁴⁸⁾

“남자가 지켜.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감시하려고 남자가 있는 거야. 에핀(아편)한 사람은 있었어. 그 사람은 나이 좀 먹었더라고.”⁴⁹⁾

“화장실은 밖에 보초들 사이에 있었어. 그래서 화장실도 가려면 보초 뒤로 해서 가야 했어. 보초들은 겨울이면 오바를 입고 털모자 쓰고 그래.”⁵⁰⁾

“거기 오바상, 오지상 (아줌마, 아저씨, 여성들을 끌고 가고 위안소를 경영했던 사람들은)은 우리 감시만 했어요. 특별히 지킬 필요도 없었어요. 외파로 떨어져 있었으니까.”⁵¹⁾

필리핀 마닐라로 끌려갔던 김소란의 증언처럼, 많은 여성들은 낯선 외국으로 연행되어 그곳의 지리와 물정을 몰라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도주한 경험이 있는 조순덕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45) 이용수의 증언 (증언 1집, 1993: 129).

46) 윤두리의 증언 (증언 1집, 1993: 294).

47) 진경평의 증언 (증언 2집, 1997: 23-4).

48) 김복동의 증언 (증언 2집, 1997: 89).

49) 김군자의 증언 (증언 3집, 1999: 82).

50)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 205).

51) 김소란의 증언 (증언 3집, 1999: 55).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밤에 도망가다가 얼마 못 가 붙잡혔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니만 나가니 헌병들이 죽 갈려 있고 부대도 군데군데 있었어. 헌병은 우리를 붙잡아 그 집으로 넘겼어요. 두 세 명이 막대기에 고무인지 뭔지를 단 채찍으로 우리 등을 마구 때려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말도 못 하고 맞다가 너무 심해 큰소리를 마구 질렀더니 그 만두고 가두었어. 사실 거기는 어디가 어딘가 길을 몰라. 가려고 해도, 나가도 맞지만.”⁵²⁾

이렇게 조선인 ‘군위안부’ 여성은 이국의 유배상태 속에서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와 노예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 강제로 끌려와서 반복적인 강간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소 운영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실제 채무에 의해 성노예의 처지에 빠졌던 것으로 ‘채무 노예(debt bondage)’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음을 들어보자.

“주인이 나를 데려다 준 조선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 동안 든 기차 값이 얼마고 옷값이 얼마라고 나에게 말해줬다. 그걸 내가 몸 팔아서 같은 것이었다. 그걸 갚으려면, 3년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⁵³⁾

“자살하려고 했을 때도 주인이 돈 댔지. 이것이 나중에 빚이지. 빚인데 기양(그냥) 있는 거 같으면 꽤 많은데. 예를 들 것 같으면 만 원이면 그게 이자가 붙는거야. 이자가 곱으로 붙는거야.”⁵⁴⁾

“군인에게서 받은 돈을 주인에게 갚다주면, 나중에 계산해 빚을 까나간다고 했지만 처음 생긴 빚은 계속 늘어갔다. 옷 사 입고 화장품도 사니 빚은 줄기는커녕 늘어갔다... 나는 그저 빚이 많다는 것뿐, 얼마인지도 몰랐다. 빚은 주인을 옮겨도 그대로 떠안고 가는데, 나는 만주에서만 네 번 정도 옮겼다.”⁵⁵⁾

“처음 팽호도 조선관에 나를 넘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돈이 내게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나를 꼬여가 팔아먹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른다. 조인은 많다고만 했다.”⁵⁶⁾

이와 같이 ‘위안부’ 여성에게 ‘빚’은 상당히 만연해 있던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앞에서 살펴 본 취업사기와 결부된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군위안부’ 제도를 일본식 공창제도의 운영방식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2) 조순덕의 증언 (증언 3집, 1999:174).

53) 하상숙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65).

54) 김옥주의 증언 (증언 3집, 1999:103).

55) 하영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68).

56) 하영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81).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위안부'들을 위안소에 묶어두고 위안소 경영인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부채는 감시와 연장선상에 있는 '위안부'에 대한 노예화 범죄에 다름 아니다.

3. 구타 및 고문

증언에 따르면, '위안부'의 생활은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타와 고문은 거짓과 납치로 연행된 여성들로 부터의 저항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씌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반항에 대하여 일본 군인은 갖은 폭력으로 말 잘 듣는 '위안부'를 만들어갔다. 그만큼 구타와 고문은 '위안부' 체제에서 만연해 있었다.

"강제로 일본놈 붙여줄라 그랬는데 내가 받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창고에 갇히지, 매는 외 받구, 그냥 가둬놓고 굶기는 거야. 굶기구는 그냥 불러내 가지구는 또, 그냥 받을 래 안 받을래 다짐 받고, 또 두드려주구. 그렇게 세월을 보낸거야... 그냥 할 수 없어서, 매 맞기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받았던 거지 뭐."57)

"반항?, 많이 했지. 얼마나 해서 개 패듯 얼마나 맞았는데, 개 패듯 패요. '빠가야로 고로야로'라고."58)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덩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그는 전화 코드를 잡아 빼서 그 줄로 나의 손목,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는 "고노야로" 하며 전화통 손잡이를 마구 돌렸다. 나는 눈에 불이 번쩍 나면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59)

"[처음] 몽고로 간 그해, 어깨에다 짹짹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 일본 군인이 내 머리를 총대로 때리더라니께.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아이구 어찌나 무섭던지,... 처음에는 나도 일본말 할 중도 모르고, 그러는디도 자꾸자꾸 드러누우라 그러는 기라. 그래 난 안 한다고 막 뿌리치고 차고 나가려고 하면 끌어 잡아당기고 또 나갈라고 하면 끌어 잡아 당기고... 그래 갖고 총대로 막 사정없이 쥐 매 머리를 박아뿌린 기라. 나는 펍 쓰러져버렸지요."60)

57) 한옥선의 증언 (증언 4집, 2000).

58) 김화선의 증언 (증언 4집, 2000).

59) 이용수의 증언 (증언 1집, 1993:127-128).

60) 황순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24). 황순이의 머리 정수리는 지금도 정상인과는 달리 손바닥만큼 내려앉아 있고 그 정수리를 빙둘러 머리뼈가 푹 볼거져나와 있다.

“주인은 도망쳤던 년이라고 하며 나를 마구 때렸다. 맞은 상처가 다 나을 무렵 군인들이 나를 자꾸 찾는데 내가 안받는다 고 하니까 주인이 곤봉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나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⁶¹⁾

“하라는 대로 안한다고 맞기도 엄청 맞고 기절도 술하게 했다. 그러면 주사 놔줘서 다시 깨어나고 오줌을 질질 싸고 피범벅이 되어 누워 있으면 어떤 놈은 냅다 발길질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했다.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으면 얼굴 가린다고 맞고, 자기들 성기를 입에 갖다대고 빨라 해서 안 빨면 맞고, 조선말 쓴다고 맞고. 하도 맞다 보니 병신이 됐는지 그저 눈만 멀둥멀둥 뜨고 송장처럼 누워있었다.”⁶²⁾

“남자를 받지 않는 여자들을 세워 놓고 작대기로 때렸다. 아파서 엎드리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막 때렸다. 하도 두드려 맞아서 지금도 팔도 아프고 허리를 못쓴다.... 죽을 만큼 두드려 맞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⁶³⁾

“한구에서 이틀쯤 걸리는 농촌의 위안소에서 손님을 안 받자 군인장교인 주인이 할머니 방에 들어와 말을 안듣는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했다. 왼손 둘째 손가락 첫째마디가 잘렸다.”⁶⁴⁾

“주인네가 인자 밥 묵으러 나가든, 밥을 못먹게 혀, 딱. [내] 이름을 적어 놓았다가, ‘왜 돈 도루 찾아가게 했냐? 너 같은 것은 이제 죽어도 승능도 없어. 남자들 싫다고 고렐라든 죽어라.’ 하고, 똥지라고 막 발로 차고, 막 눈탱이도 찍고, 기양 혁-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끄덩이를 땡겨다가 땅에 쳐박고, 시방도 그때 생각하며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한숨을 쉬며) 하이유, 막 이두 그때 다 빠지구, 막 두드려 패 싸서 그래, 일본놈들이. 이러구 두들겨 패, 울며는 운다구 두드려 패지, 영 울도 못 허구, 그냥 밋 날 미칠을 밥도 못 묵어요, 붓어가꼬. 이가 에리여 에려, 낭중에는. 내가 이가 하나도 없어요. 서른살 안쪽에 다 없애(없어져) 버렸어요.”⁶⁵⁾

“아래가 하도 아파서 제대로 상대를 못 해주면 짐승 때리듯 나를 패는 거야. 그때 머리를 하도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자꾸 아픈가 봐.”⁶⁶⁾

“일본말 하는 데 알아들어, 오십 사년전인데 뭘. 거절해서 두드려 맞았지, 귀통백이를 얻어맞았어. 그래서 고막이 터졌어... 이쪽 저쪽 양 쪽 때렸는데 오른 쪽 귀가 터졌어. 안들려, 지금도.”⁶⁷⁾

61) 하순녀의 증언 (증언 1집, 1993:80).

62) 최명순의 증언 (증언 1집, 1993:264).

63) 김분선의 증언 (증언 2집, 1997:104).

64) 역영란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142).

65)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66) 김은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128).

이렇게 당시의 육체적 손상은 오늘날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1942년 열 다섯 살에 방직공장에 간다고 하여 끌려간 최화선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한다.

“그 어린 것들을 막 몇 놈들이 해코지를 하니께 배겨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못 한다고 그러니께로 입에 다 대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입에 다 갖다 넣었는데, 내가 깨물었어.... 그러자 장교가 그 즉시 그냥 나를 뺨을 몇 대 때리더니 보초를 불러가지고는 지키고 서서 때리라는 거야. 밤이었지만 비행기 때문에 불을 못 켜거든, 보초가 나를 그냥 끌고 나가서러 몽둥이로 마구 그냥 아무데나 패댔으니, 내가 몇 대 맞고 뺨으니까 까무라친 나를 창고에 갖다 넣은 거야....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낮이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팠는지, 뼈가 다 으스러진 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시방 다 나았는데도 이렇게 됐지. 오늘 쪽 팔이 지금도 얼마나 아픈지.”⁶⁷⁾

당시 구타했던 그 “계급 높은 군인”은 그 곳에 오래 남아서 “다른 군인을 하고 한 열흘은 그 놈이 혼자서 그랬어”라고 최화선은 술회한다. 이렇게 구타는 위에서 살핀 지속적 강간과 교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구타는 ‘강간’을 강제하기 위한 고문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심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에서 이 측면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기로 하자.

4. 생식기 파손과 성병

가공할 만한 숫자의 강간 경험은 대다수 ‘군위안부’ 여성들의 생식기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나이 어린 소녀로 끌려간 경우 반복되는 강간으로 인하여 성기가 ‘찢어졌다’는 체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미 1934년, 열두 살의 어린 나이로 끌려간 황순이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살이 아파서 죽겠는디. 막 눈물이 절로 나느니라. 밥도 못 먹지, 이리 날만 샅다 하면 군인들이 올 생각에 그만 똑 지옥에 들어가는 거 같애...나는 개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열댓 명이서 그렇게 꺾는가 봐. 아유, 그런 어린 게 무리니(무리하게) 당하니까 피가 그냥 이렇게 흘러갖고 며칠 아파갖고 오줌도 못 똥어. 막 그냥 울고. 밥도 못 먹졌고, 얼마나 참말로 죽겠던고.”⁶⁹⁾

“나는 군인을 많이 상대해서 밑이 통통 붓곤 했다. 밑이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갔는

67) 김군자의 증언 (증언 3집, 1999:81).

68)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202). 최화선의 오른쪽 팔은 지금도 뼈가 으스러진 상태로 약간 울퉁불퉁하고 단단하다. 지금도 그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지 못한다.

69) 황순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225).

데 병원에 갈 때는 아랫배가 터져나올 것같이 아팠다.”⁷⁰⁾

“나중에는 질이 통통 부어 소독 호스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⁷¹⁾

“아이고, 안 들어가는데 그걸 대고 억지로 쑤시고 넣을라카이 막 짜지는데 얼마나 아픈교, 그래 죽는다고 발로 탁탁탁탁 그리다가 내중에는 그냥 시퍼러이 넘어가 뿌렸는 기라. 이래가 또 오줌을 한 일주일 동안 못 누웠는 기라...오줌은 놀라 캐도 오줌이 생전 안 나와예. 여 배는 아파 못 전디졌고, 여 밑에는 짜저가 피가 나와서 흥건하니 이래가 있고 그랬어예... 그래가 있는데도 대꼬가서 저거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이튿날 저녁 되면 또 와예, 와서 또 해예, 이라니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죽어버리는 기라. 나는...그래 거서 한 일년 있다가 또 판데로 끄질고 가더라고... 만준동(만주인지) 어텐동 천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그런데] 뭐 곁은 놈들이 들어오디만은 좋다 카고 또 할라고 대드는 기라. 여를 보니까 통통 부어가지고 있고 피가 질질나고 막 이렇거든, 이래가 전신이 다 짜저가 알긋고 이랬어예.”⁷²⁾

다음은 1922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38년 되던 해에 동네 할머니가 강제로 기차를 태워 만주의 봉천으로 끌고가 그곳에서 ‘위안부’생활을 하게 된 홍강림의 증언이다.

“얼마 후 다시 군인들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검사를 하면서 밑이 작다고 군의가 나의 질 입구를 칼로 찼었다. 마취를 한 것도 아니고, 생살을 그렇게 찢었이니 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었다.”⁷³⁾

홍강림은 이후 상해로 넘어져 생활을 하다가 해방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의 토로한 이러한 성기 파손은 생식기 손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도 다수 나타난다. 다음은 성병에 관한 증언들이다.

“아래에 병이 나면 오리같이 생긴 걸 아래에 넣어서 검사하는데, 한 반 년 정도 있으니까 바이도쿠,[매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질 안에 염증이 생겼는지 근질 근질하다가 통통 부어서 무척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질 속을 들여다보더니 ”아직 괜찮다, 며칠 더 있다 짜면 되겠다“며 그냥 군인들을 받게 했어요. 내가 아래가 아파서 못 하겠다고... 애걸을 하는데도 계속 군인을 받게 하데요.. 아래에 고름이 차 부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이(위안소 관리인)는 그냥 칼로 고름 찬 곳을 쪽 찼더니 숨에 하얀 가루를

70) 이영숙의 증언 (증언 1집, 1993: 66).

71) 박연이의 증언 (증언 2집, 1997: 125).

72)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51-152).

73) 홍강림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32),

묻혀서 넣어주데. 그리고는 다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일하라고 하데.”74)

“하도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얼마 안되어 몸쓸 병이 들었는지 밀이 시뻘겅게 통통 붓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병든 상태에서도 계속 군인을 받았다. 한번은 어떤 놈이 바지를 내리고 덤벼들려고 하다가 시뻘겅게 된 내 밀을 보고 뭐라 욕지거리를 하고는 못같이 뽀족한 것을 가지고 밀을 찢러 버렸다. 거기에 병균이 옮겨 번져서 고름과 피가 범벅이 되었는데도 그냥 누워 군인을 받았다. ...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를 않았다. 무슨 주사인지 한번 맞고 나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입과 코에 냄새가 올라와 역겨웠다.”75)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사타구니 양쪽이 툭 터져서 그냥 피고름이 나왔는데, 자궁내에 생긴 고름이 썩은 후 부풀어서 저절로 터진 것이었다. 다리도 부었다. 밀이 뒤집어져서 대소변도 못봤다.”76)

“[매독이 걸려서] 입원 꺼정 했던 거 같애... 그냥 고름이 나와 가리고. (작은 소리) 아래에서 인제 부순 벌러지 같은 게 나오데. 자꾸 인제 약솜으로 이렇게 씻어 내리잖아.”77)

이러한 성기질환과 성병은 이들 ‘위안부’ 여성들이 생존하여 한국에 귀국하였다고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생존 ‘군위안부’는 정규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밀이] 다 찢겨 나발 같은 거 어는 놈이 달고 살며. 남자 그거 몸써 리치고도 안 남느냐. 내사 사나(사내)라 카는 거는 꼴도 싫고 말도 하기 싫다”78)라는 심달연 할머니 말처럼 이미 이 여성들은 남성과 ‘정상적’ 관계를 가지기에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성(sexuality)은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 버렸다. 한편 ‘군위안부’ 당시의 성병이 지속되어 되물림된 경우도 나타난다. ‘위안부’ 시절 매독에 걸렸던 최화선 할머니가 그 중 한 경우이다.

“거기서도 606호 많이 맞고 한국에 나와서도 꽤 많이 맞았어요. 병 없는 여자가 별로 없어. ‘삿쿠’ 끼는 군인은 끼지만 안 끼는 군인이 더 많아...[한국에 와서] 거의 치료가 된 다음에 아이가 하나 생겨서 딸을 낳았어. 내가 스무 두 살 때였어. 6.25 사변 날 때 [한국인 징용 남자로서 ‘위안부’ 시절에 만난] 남편과 같이 있었어. 이북에서 의용군 보낸다고 붙들어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집갔던 딸은 아기가 자궁 바깥에 임신이 돼 가지고 수술을 하는 데, 검진하니 병이 나온다는 거

74) 김은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130).

75) 최명순의 증언 (증언 1집, 1993: 265-6).

76) 강무자의 증언 (증언 2집, 1997: 59-60).

77) 안법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78)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65).

야. 매독이. 사돈 쪽에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 했지. 의사가 하는 소리가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도 있고 윗대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⁷⁹⁾

이러한 피해는 ‘위안부’ 여성의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말한다. 강덕경 할머니는 ‘군위안부’ 시절의 고통이 생식기에서 연속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거기 갔다와서 특히 몸이 아프다. 젊었을 때는 다달이 월경을 할 때마다 이틀씩은 방을 해매고 다녔다. 하도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리고 자꾸 하혈을 했다... 너무 아파서 이것만 나오면 발가벗고 춤이라고 출 것 같았다. 병원에서 자궁 내막염, 나팔관 이상이라고 했다.”⁸⁰⁾

이렇게 육체에 남겨진 ‘위안부’ 피해는 그들의 성기, 자궁, 그리고 전육신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후 성기파손, 불임, 성병, 남성기피, 자식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⁸¹⁾

5. 임신과 인공유산

반복되는 강간 속에서 ‘군위안부’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에 언제나 놓여 있었다. 실제로 임신을 원치 않은 것은 여성들만큼이나 일본군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 대부분 인공중절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자신의 임신이나 주위 여성의 임신에 대한 증언이다.

“(귀국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죽었다고 했다. 꺼내 보니 사내아이인데 얼굴부터 몸 반쪽이 이미 썩어있었다. ..6~7개월된 아이였다. 아이는 죽은채로 내 뱃속에서 근 한달을 있었던 것이다.”⁸²⁾

“한번 임신했는데 3~4개월 무렵 주사를 놔서 떨어뜨렸다. 사람모양 같은 핏덩어리가 나왔다.”⁸³⁾

“임신하면 주인이 유산시켜. 나는 생리가 열여섯에 시작해서 마흔 여덟에 끊어졌지 (침묵). 유산한 적이 있어.”⁸⁴⁾

79)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215).

80) 강덕경의 증언 (증언 1집, 1993:282).

81) 보다 자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후술 참조.

82) 최명순의 증언 (증언 1집, 1993:167).

83) 김춘자의 증언 (증언 2집, 1997:157).

84) 김군자의 증언 (증언 3집, 1999:82).

“임신했지, 많이 뻘어. 주인이 나를 민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떼내야. 눈치 안 나게 떼내. 낳으면 자기 손해잖아. 니 애 낳아 갖고 어떻게 살 낄데 그래. 많이 뻘어. 여자 중에 (임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삿쿠’ 끼면 되는데, ‘삿쿠’ 안 낄라고 하는 놈들이 있거든.”⁸⁵⁾

“같이 있던 위안부 중 두사람이 임신을 했었다. 임신한 여자 중 한 명은 낙태수술하다가 잘못되어서 죽었다. 또 한명은 배가 꽤 불렀었는데, 배가 많이 불러오자 자살하려고 계단에 목을 매달았다가 군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길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⁸⁶⁾

“위안부 중에는 임신한 여자도 있었다. 한 여자는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아기가 곧 죽었고 다른 여자는 임신 중 낙태로 인하여 수술(인공유산)을 했다.”⁸⁷⁾

송신도의 경우는 임신과 중절을 여러 번 경험한 참혹상을 나타낸다.

“[무창의 위안소에서] 임신했지만, 계속 성행위를 강요당해, 7개월째 사산되었다. 그 때, 원고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출산했다. 겨우 아이의 몸을 꺼낸 때에는, 아이는 포도색이 되어 사망했다. 또한 무창을 떠난 이후 각지의 군 ‘위안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원고는 한구에서의 출산을 포함하여 두 번 출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야만 했다. 그 외에도 임신했지만. 임신하면 내쫓기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민간요법으로 중절을 해야만 했다.”⁸⁸⁾

이상과 같은 임신과 인공중절은 ‘군위안부’ 여성이 일본군인들의 성욕충족을 위한 군수물자였지 재생산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 점은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다산을 장려하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⁸⁹⁾ 이렇게 조선인 ‘위안부’ 여성의 생식기를 파손시키고, 임신을 막았으며, 임신했을 경우 인공중절을 실시한 일련의 행위에서 조선인 ‘군위안부’ 제도는 조선인에 대한 인종말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⁹⁰⁾ 이 측면을 불임조치에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6. 불임조치

85) 김옥주의 증언 (증언 3집, 1999:103).

86) 윤두리의 증언 (증언 1집, 1993:293).

87) 배죽간의 증언 (증언 2집, 1997:177).

88) 송신도의 증언 (송신도 소장, 2000:13).

89) 당시 일본의 인구 재생산 정책에 관해서는 시즈키 유코(“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편), 자료집, 1, pp. 13-15)를 참조.

90)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상 할머니는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 한 일본병사가 “우리는 조센징의 아이가 필요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칼로 그었다고 증언한다 (다카시 이토, 『흰 옷고름 입에 물고』, (서울: 풀빛), 1994, pp.117-122).

증언에 의하면, ‘위안부’ 경험 이후 불임증이 생긴 경우는 매우 빈번하다. 또한 무리한 임신중절로 인하여 재생산 능력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황금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606호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으시시 추우면서 하혈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가 자궁 속을 긁어냈다. 이렇게 서너 번 긁어내면 임신은 더 이상 되지 않았다.”⁹¹⁾

“배가 아프고 막 어찌 몸이 고단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 거 육군 병원인가 어딘가 난 몰라, 나를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해보더니, 애기라고, 배를, 이렇게 갈랐어. 이렇게 배를 갈라서 애기를 빼냈나며, 난 몰라. 내가 가만 생각하면 그놈들이 잘못된 거 같아. 애기라고 피 긁어 내고 배째고.”⁹²⁾

“(배 수술자국을 보여주며) 내 여그 수술도 했잖아.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이 구찌 선생이라고 있어요, 일본 의사. 그 이사 수술 해 줬어. 수술로 낳고 그 다음부터는 인자에 못 낳게 하지.”⁹³⁾

위의 경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이 수술 후 불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시절, 불임을 유도하는 수술, 약,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도 많이 나타난다. 중국으로 끌려간 하상숙의 경우, 1944년 12월부터 한구에 있는 적경리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의사는 나를 검사하고 처녀인 것을 알았다.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았다. 무슨 주사냐고 언니들에게 물르니 어린애 못 낳게 하는 주사하고 했다. 어린애 못 낳는 약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원래 처음 들어오면 그런다고 했다. 그래서 위안소에 어린애 뱀 여자가 없었다.”⁹⁴⁾

역시 중국으로 끌려간 홍애진은 급기야 자궁적출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이다. 1928년 경남 통영 농가에서 태어난 피해자는 홍또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위안소에서 꽃처럼 이쁘다고 ‘하나코’라고 불렸다. 그녀는 말한다.

“정기 검진을 할 때 의사가 우리에게 불임 주사를 놔주었다. 그런데도 나는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번 임신했다.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때 임신한게 발각되어 수술로

91) 황금주의 증언 (증언 1집, 1993:100).

92) 김복동의 증언 (증언 4집, 2000).

93) 김영자의 증언 (증언 4집, 2000).

94) 하상숙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66).

유산시켰다. 이때 자궁적출 수술도 같이 하여 그 후 월경조차도 끊어져 버렸다. 이 수술을 한 흉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⁹⁵⁾

이외에도 강무자는 “애를 못낳는 주사도 놓았다고 한다 (1997: 58)”고 술회하고 최갑순은 ‘위안부’ 시절 임신이 되지 않게, “애기보를 돌렸다(뒤틀었다)”고 생각한다.⁹⁶⁾ 이후 최갑순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 하였다. 불임증은 앞에서 ‘위안부’ 여성들의 재생산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여성 개개인에게는 자녀출산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한국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비하와 말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여성들에게 불임증은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평생에 걸친 피해로 작용하여왔다.

7. 정신적 고통: 충격과 공포

이러한 극심한 피해 속에서, 여성들은 정신적인 공포와 충격 속에서 살고 있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열 두 세 살 때, 들에서 나물 캐다가 끌려간 심달연은 그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감(고함)을 한 번 지를 때 퍼득(금방) 가야지 안 그라마 요마끔한 칼로 가 땡기며 (가지고 다니면서) 딱 던지예... 나도 저게서 누가 오라카는데 퍼득 안 온다고 먼 데서 쥘 던지가지고 여게 척 꿈히예. 허벅다리 여기에 숭(흉터) 있어예, 칼 숭터.... 여도 그래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다.”⁹⁷⁾

계속해서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이다.

“한날 저녁(저녁)에 뭐라 한 바리(마리)가 들오디만은 옷을 싹 끄잡아땡겨 뿌리는 기라. 그래가 어데로 날 델고 갔어예. 거가 어텐지도 나는 모리겠는데 높은 사람인지 뭔지한테 가서 데리고 왔다 이카고. 그래가 옷 비끼라(벗기라) 이켰는 모양이라. 그래 여는 다 벗고 아래쪽은 안 벗고 이래가 있으니까 안 벗는다고 막 머러카는(뭐라고 하는) 기라. 머러카민서 발로 막 들고 차고 머리끄다(머리채)도 쥐고 막 땡기고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각각 들이박고 이카더라카이.”⁹⁸⁾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 [정신이] 안 돌고 우야는교, 그래노니 전신이 멍이 막 들고 대가리에는 돌

95) 홍애진의 증언 (중국 증언집, 1994:48).

96)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97)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48).

98)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49-150).

맹이도 백이가 있고, 내중에는 부어가 손도 못 대겠고 이렇데요... 그라이 혼이 다 나가 뽀다카이, 정신없어예, 거 갔다 온 사람치고 정신 말뚱말뚱한 사람은 내 회한하다 싶으 다카이, 뚜드려 맞는 것만 해도 뚜드려 맞고 나쁜 정신 하나도 없어예.”⁹⁹⁾

실제로 할머니는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계속 치료도 받고 정상인 구실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달연이 이야기하는 정신적 충격과 정신나감은 할머니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할린 지역에서 4년간 ‘군위안부’로 있었던 조순덕의 경우도 정신병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말한다.

“난 청량리 병원에 갔기 때문에 영 기억을 못 해요... [나한테] 뭘 들으려고 해, ..청량리 병원 나와서 배추를 앞에 두고 다듬을 줄도 모르고, 목욕할 줄도 몰라 주위에서 도와주었어요.”¹⁰⁰⁾

기억상실증은 그 정의상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 고리를 가진다. 따라서 왜 기억상실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기억상실증으로 나타난다. 언니와 함께 끌려갔던 김소란의 경우 역시 해방후 정신병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집 나가지고 장롱에 걸려 있는 옷을 방에 내놓고 불지르려 하고, 내 혼자 산에 올라가려 그러고 굉장했다고요. 병이 심해가지고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약 먹고, 내 혼자만 가슴에 여 놓고, 누구한테 말할 때는 없고....” 병원에 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라고 하여도 ‘거기 갔다 온 이야기’ 만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원인은 그건데.”¹⁰¹⁾

“맨날 쫓겨온 사람처럼 벌벌 떨리고 술 한잔 마셔도 긴장”되었다는 김옥주 할머니처럼¹⁰²⁾ 불안, 정신병, 기억상실증은 ‘군위안부’ 체험이 남긴 현재의 후유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후유증을 통해 우리는 ‘위안부’ 경험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 본 ‘지속적 강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상, 하루에 군인을 몇 명 상대하였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등 강간에 관한 부분이 생존자 여성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할머니들의 증언이 세상에 공개될 때는 마치 할머니들이 고발하듯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현재 70-80대이신 할머니들은 이 부분의 체험을 가장 말하기 어려워한다. 할머니 중에는 이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시는 분도 많다. 이것은 위안소에서 강간이 강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치, 억압, 분노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다층적 범죄라는 것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위안소에서 당한 강간에 대한 명명조차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손님을 받았다(received the guests)’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위안부’

99) 심달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48-150).

100) 조순덕의 증언 (증언 3집, 1999:170).

101) 김소란의 증언 (증언 3집, 1999:65).

102) 김옥주의 증언 (증언 3집, 1999:115).

문제가 얼마나 조명되지 않아 왔는가를 반증한다. 강제로 끌려가서 셀 수 없는 강제성교를 당해놓고도 그 범죄상을 지적할 언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침묵의 공간 속에서 전 ‘군위안부’ 여성들의 정신질환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늘날까지 ‘위안부’ 체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분노와 억압의 객관적 조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8. 살해(Murder)

현재의 모든 증언 자료는 생존 여성들의 증언에 입각해 있으므로 살해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생존 여성들이 체험한 위협이나 목격을 통해 ‘위안부’ 생활이 목숨의 위협에 놓여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 그만 그 일본 군인 하나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내 목을 칠라고 하는 거라. 차라리 그 때 죽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랬어.”¹⁰³⁾

“매를 된 통 맞은 다음에는 무서우니께 반항 안 하지, 거기서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끌어내다 죽이는 거야”라는 최화선의 증언처럼¹⁰⁴⁾ ‘위안부’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 아닌 존재들이었다. 또한 현재의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이 살해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 거기서(위안소) 그렇게 육개월을 있으니까 죽게 생겼잖여, 내가. 여자들 도망가다가 죽은 여자 많아요. 그러면 우물에다 집어넣는다고.”¹⁰⁵⁾

“병이 심하면 다른 방으로 격리하고 변소도 따로 쓰도록 하다가 나아지면 다시 데려왔다. 이렇게 두 번까지 치료하다 세 번째 재발하면 군인이 와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 여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¹⁰⁶⁾

한편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위안부’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각 박영심(북한 증인), 이옥분, 윤순만의 증언이다.

“놈들은 이렇게 못되게 놀다가도 처녀들이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처녀들을 가차없이 어디론가 실어가거나 강물에 처넣어 죽이곤 하였다.”¹⁰⁷⁾

“이렇게 혹사당해 몸이 너무 쇠약해지면 나카인들이 한 위안소에서 3명에서 5명을

103) 황순이의 증언 (증언 3집, 1999: 225).

104) 최화선의 증언 (증언 3집, 1999: 203).

105) 김화선의 증언 (증언 4집, 2000).

106) 황금주의 증언 (증언1집, 1993: 101).

107) 박영심의 증언, 『깃발친 인생의 외침 - 종군위안부 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평양) 1995, p.80.

끌어내어 골방에 두었다. 골방에 두고는 밥도 주지 않았다. 주사를 놔도 별 소용이 없다 싶으면 군인들이 이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갔다. 죽은 여자는 산에 가져다 버렸다.”¹⁰⁸⁾

“거기(방치소) 가면 밥도 안 주고 뭐 주지도 안하고 굶어서 죽이는 데예요... 옛날에 콩깍묵이 있지. 그것을 먹고 물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고 사는 놈도 있고, 그것도 먹기 싫어 굶다 굶다 병 들어, 병 있는 사람은 죽고.... 똥똥하고 키도 크고 그런 처녀가 있었어. 근데, 그 처녀는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여기가 반쯤 썩었어.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께, 말 안 듣는다고 보지에다가 총살을 했는데, 여기서 일로(옆으로) 뚫고 나갔어.”¹⁰⁹⁾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폭행과 방치는 이제까지 살펴 각종 폭력의 가장 극단화된 형태로서, 그러한 폭력과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러한 직접적 폭력 이외에도 ‘위안부’들의 자살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목격한 증언들이다.

“한번은 술을 먹고 내 신세가 처량하여 3층에 올라가 투신한 적도 있다.”¹¹⁰⁾

“죽으려고 머리에 물들이는 약을 마시려고 했다.”¹¹¹⁾

“나와 다른 여자 두 명은 같이 죽자고 얘기했다... 우리 중에 누가 ”술이다. 줄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더라“고 해서 우리는 뼈갈을 나눠 마셨다.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대로 뻗어버렸다. 우리들은 사흘 동안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이 때 속을 버린 것이 지금까지도 소화가 제대로 안된다.”¹¹²⁾

“거기 같이 있던 여자들 중에 몇 명은 죽어 나갔어요. 황해도 여자 하나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또 하나는 자고 있는 군인한테서 몰래 총을 훔쳐다가 자기가 총을 쏘서 죽고, 또 아편해서 죽은 여자, 참 많이 죽었어요.”¹¹³⁾

“[위안부 중] 한 명은 배가 꽤 불렀었는데, 배가 많이 불러오자 자살하려고 계단에 목을 매달았다가 군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길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¹¹⁴⁾

“전라도 출신 여자는 병에 걸려 고통을 참지 못해 천장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 ...

108) 이옥분의 증언 (증언 1집, 1993: 140-141).

109) 윤순탄의 증언 (증언 4집, 2000).

110) 문옥주의 증언 (증언1집, 1993: 161).

111) 이득남의 증언 (증언 1집, 1993: 207).

112) 김복동의 증언 (증언 2집, 1997: 89-90).

113) 김은래의 증언 (증언 3집, 1999:133).

114) 윤두리의 증언 (증언 1집, 1993: 293).

나중에 매독에 걸려 자살한 여자도 있었다.”¹¹⁵⁾

“군 위안소에서는, 결핵, 말라리아, 성병 등 병에 걸린 자도 있었다. 적의 포탄을 맞아 죽은 자도 있다. 병 때문에 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 절망하여 화장실에서 크레졸 원액을 마셔 자살한 ‘위안부’도 있었다. 목 매달아 죽은 ‘위안부’도 있었다.”¹¹⁶⁾

이렇게 ‘위안부’들의 자살은 살인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안부’라는 객관적 조건이 낳은 간접 살인의 성격을 가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안부’의 열악한 생활에서 병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그 중 극히 일부이다.

“한 언니가 폐병이 들어서 어느 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이 떠난 후 내가 자원하여 언니를 돌봤다. 그러나 그는 열흘이 지나 숨을 거두었다.”¹¹⁷⁾

“나와 만주 목단강에서 함께 온 두 살 위의 평양 여자는 군인한테서 성병을 옮겨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¹¹⁸⁾

“나는 6개월이 지나 매독에 걸렸다. 또 일본말로 ‘요코네’라 하여 그 증상이 사타구니에 몽아리가 쏘고 머리머 눈알까지 가려웠는데 일본약으로 삭아내려 나왔다. 그 후 매독으로 2명의 여자가 죽었다.”¹¹⁹⁾

“동료 중 ‘다마코’라는 여자가 병에 걸렸다. 열이 올라 밥도 못먹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 듯이 떨었다. 다마코도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다. 다마코는 어찌나 심하게 떨며 발작을 하던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 간호를 했다. 그렇게 살리려고 고생을 했지만 다마코는 이튿날 아침 숨을 거두고 말았다.”¹²⁰⁾

이렇게 병에 의한 사망이 살인하고 할 수는 없지만, ‘위안부’의 간접 살인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위안부’들은 각종 폭력과 죽음의 위협

115) 여복실의 증언 (증언 2집, 1997: 204).

116) 송신도의 증언 (송신도 소장, 12).

117) 문옥주의 증언 (증언 1집, 1993: 162).

118) 이득남의 증언 (증언 1집, 1993: 207).

119) 진경평의 증언 (증언 2집, 23).

120) 박연아의 증언 (증언 2집, 1997: 126-7). ‘위안소’에서는 한국 여성도 일본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예를 들면, 손관임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 때 [한국인 위안부] 친구들 이름은 히데코, 마리코, 히로코, 스미코, 야끼코, 기누에, 가츠마루 등이었다 (증언 2집, 1997: 75). 또한, 한국인간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과 연여관을 보아서는 일본 여성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에 노출된 '총체적 인간 말살의 상황'에 있었다고 하겠다.

9. 기타 피해

(1) 강제결혼

증언에 따르면, 특정 일본 군인과 강제결혼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경우도 나타난다. 1921년 경남에서 출생하여 1937년 일본공장 여공모집에 따라나섰다가 상해로 끌려와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된 김덕진(가명)은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하루에 3-40명의 일반 군인을 상대하면서 단골로 오게되는 군인들이 가끔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말들을 듣기도 하였다. 계급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을 골라 부대 안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이런 중에 나도 불려가 이즈미라는 군인을 알게되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즈미의 방은 넓었고 그 안엔 큰 침대가 있었으며 번쩍거리는 총과 군복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전토가 잠잠하여 시간이 날 때는 졸병을 시켜서, 나를 불러들여 이삼일간 자기 방에서 재웠다... 이즈미를 자주 만나면서 나는 이즈미를 아버지겸 남편겸 생각하면서 살았다.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나면 일본으로 데려가 산다고 했다.”¹²¹⁾

다음은 중국 길림성으로 끌려갔던 한옥선의 경우이다. 한옥선은 하가쇼이라는 군의관과 가깝게 지내, 두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하가쇼이라는 군의관이 장교예요. 군의관이 검사를 하고는 어떻게 내가 좀 몸이 깨끗한 여잔지, 처녀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알았나봐요. 며칠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선 날 찾아요. 그래서 나가니께, 그 하가 군인장교가, 군의장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볼르드라구요. 그래서 뭐, 몸은 버린 몸이니께 할 수 없어서 그냥 정말 대접을 하고 보냈더니....지가 [그 하가쇼이와] 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울먹이며) 일본 갔어요. 둘다 기를 수가 없어서 양딸을 줬거든요. 큰 애를 가졌는데, 오보이징에 있었을 적에 큰 애를 가져서, 낳게 됐지요.”¹²²⁾

현재 한옥선은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그녀에게 '위안부' 체험은 오늘날 까지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2) 아편주입과 약물투여

121) 김덕진의 증언 (증언 1집, 1993:53-54).

122) 한옥선의 증언 (증언 4집, 2000).

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만연하였던 아편주입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들 겪은 고통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편 중독에 대한 증언들이다.

“[아편하는] 그런 언니들이 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주사를 더 꽂을 데가 없으면 살이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¹²³⁾

“내가 거기 가서 2, 3년 지났을 무렵 고향으로 편지를 대신 써준 평양 여자가 아편 중독으로 죽었다. 그 여자는 밥상에서 하얀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곤 했다. 뭐냐고 물으면 약이라고 했다. 아편을 먹고는 활기가 나서 춤을 추고 난리였다... 여자들은 주인 몰래 아편을 했다.”¹²⁴⁾

“아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중국에는 아편쟁이들이 많대요...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 번 찔러보니까 세상이 내 세상이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던 여자들도 몰래 아편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찔러줬어요. 들키면 큰일 나지, 군인은 아편을 못 찌르게 돼 있었거든. 그래도 군인들이 몰래몰래 찔러줬는데, 같이 아편 찌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찔러주고 자기들도 찌르고, 그렇게 했어요.”¹²⁵⁾

(3) 강제 사역(Forced Labour)

많은 생존자들은 소위 ‘위안부’ 노릇 이외에 시키는 대로 온갖 종류의 노동을 함께 하였다고 증언한다. 또한 간호부로 위장시킨 경우도 나타나며, 군사훈련 혹은 국방부 인회 활동을 시킨 경우도 나타난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전쟁이라는 전체 시스템 속에 ‘위안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는 곧 그 군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시작했다. 옷을 빨고 싸움터에 가는 군인들을 전송해주고, 죽은 군인들의 장례식에 까만 모자와 기모노를 입고 참석했다. 전쟁터에서 상처입고 돌아온 부상병들의 피도 닦아주었다. 우리는 또 군인들의 술자리에 가서 술을 따라주면서 같이 어울려야 했다.... 군인 한 명이 와서 우리 여자들 다섯명을 다 모이라고 하더니, 귀에서 피를 빼 검사했다. 검사를 한 후에 나는 그곳의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 불려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후 우리는 군인들의 빨래나 상처 돌보기,

123) 김춘자의 증언 (증언 2집, 1997: 153).

124) 하순녀의 증언 (증언 1집, 1993: 81-82).

125) 김은례의 증언 (증언 3집, 1999: 133-134).

술대접도 같이 하면서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¹²⁶⁾

“처음에 위안소에 도착하자 성병이 있는지 처녀인지 등을 검사했다. 그후 군의는 나에게 몇 달동안 간호부 일을 시켰다. 그래서 부상병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는 일을 배워서 했다. 그리고 병원의 빨래도 했다. 낮에는 병원일을 하고 밤에는 군의가 나에게 자러왔다. ...간호부 일을 하는 동안은 군의 외에 다른 군인들은 상대하지 않았으나, 몇 달 후에는 간호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위안부 짓을 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짓을 하면서도 부상자들이 많을 때는 가끔씩 병원에 가서 간호부 일을 해야 했다.”¹²⁷⁾

“일본군인들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10육군병원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같은 여자들이 300명 정도 와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우리에게 간호훈련을 시켰다....또 병원에서는 전부 피검사를 받은 후 걸핏하면 피가 모자라는 환자를 위해 피를 뽑았다. 피를 뽑히면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고 어지러웠다.”¹²⁸⁾

“한달 후 우리는 부대에서 떠나 다시 차에 실려 2~3시간을 달려서 어느 허허벌판에 있는 육군야전병원으로 갔다. 병원장은 우리를 집합시켜놓고 그 병원에 3개월만 있으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에 돌아온 후에야 안 일이지만, 당시 미군이 그 섬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만약 우리들의 신분이 탄로나면 일본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염려해서 우리를 간호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임시 간호원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마크도 붙였다. 우리는 거기서 환자들 치료도 해주고, 붕대도 빨고, 약도 날랐다.”¹²⁹⁾

“군인들에게서 훈련도 받았다. ‘국방부인회’라고 쓴 어깨띠를 어깨에 걸고, 모자를 쓰고, 까만 몸매를 입고 나가 군인들 하라는대로 훈련을 받았다.”¹³⁰⁾

“어느 때는 날을 잡아서 그 집에 있던 4, 50명 되는 여자들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훈련을 받으러 나갔다. 훈련은 일본군인이 나와서 시켰다. 국방색 옷을 맞춰주었다... 배도 고프고 햇빛을 많이 쬔여서 몇 번 쓰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배도 맞았다.”¹³¹⁾

IV. 종전 직후의 피해와 범죄

126) 최일래의 증언 (증언 2, 1997:187-188).

127) 문필기의 증언 (증언 1집, 1993:112-113).

128) 김복동의 증언 (증언 2집, 1997: 95).

129) 손관립의 증언 (증언 2집, 1997: 79).

130) 오오목의 증언 (증언 1집, 1993:90).

131) 이상옥의 증언 (증언 1집, 1993: 191-192).

‘위안부’됨의 피해는 ‘위안부’ 시기에 끝나지 않았다. 이들이 당했던 피해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위안부’들의 죽음은 이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역사적 집단 체험을, 이제 불완전하나마 증언을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전장에서의 유기, 살해 및 대량 학살, 다ياس포라라는 측면으로 종전 직후의 피해와 범죄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장에서의 유기

증언에 의하면, 생존자들은 대부분 일본의 패전사실, 즉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연행에서부터 종전에까지 이들은 철저히 정보 통제와 배제의 상황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 2차 대전 말기에서부터 이미 ‘위안부’들 대다수가 방치되고 유기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위안부’들은 위안소에서 학대와 폭력 뿐 아니라 전쟁의 공포와 각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2차대전 말기에] 피란을 가라고 하는거야. 그래 산 속에 가서, 여럿이. 여럿이 가서 산속에 있었지, 남 몸만 살아 가지고 어쩌케... 배도 많이 굶고, 참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 인제는 고향도 다 가고 부모도 못 만나 보고 그러나 보다고. 중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일본 놈들하고 한 편 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죽었지.”¹³²⁾

“산으로 산으로 피난 땡기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설탕 만드는데, 사탕수수도 먹고... 달팽이도 먹고, 그걸 한 숟 달팽이 썰어 넣고, 그걸 삶아서 한 대접씩 먹고, 고생을 말로 다 못하지. 우리는 해방된 줄도 몰랐어. 왜놈들이 해방됐다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씨발놈 개놈의 새끼들이 해방된 것도 안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런 줄 알았으면 [그 놈들 이름을 다] 기억해 둘 걸. 그 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 거 기억할 여가가 없어.”¹³³⁾

“[일본 패전하고 나니까] 우리 데리고 있던 남자니, 일본 사람. ... 그 놈은 온데 간데 없어. [내가]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어디로 없어졌는지. 내가 한국에 나와야 하는데, 응, 한국엘 나오질 못하니까는,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럼. 내가 한국에 나와야 할 거 아녜요. 그리구는 저희들은 싹 없어졌으니까. 내가 부에(화)가 안 나갔나 말예요. ..거기에 여자들 한 서너명 됐거든, 그랬는데, 난중에 애길 들으니까. 뭐 배를 타고 나오다가 모두들 그렇게 죽구 어찌구 그랬다 그러드라고요. 부산에 와서 애기 들으니까 글썽, 배 타고들 나오다가 다 죽었대잖아요.”¹³⁴⁾

132) 김영자의 증언 (증언 4집, 2000).

133) 김창연(가명)의 증언 (증언 4집, 2000).

134) 안범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1945년 8월, 군 위안소에서 일본의 패전을 알았다. 군은 ‘위안부’들에게 패전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된 전 ‘위안부’의 상황은 비참함의 극치였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국인과 함께 하는 자도 있었다. 중국의 군인에 몸을 파는 자도 있었다. 절망하여 자식과 동반자살을 꾀한 전 ‘위안부’도 있었다.”¹³⁵⁾

이러한 유기 상황은 곧 이들 전 ‘위안부’들이 전장의 위험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방어기술도 없었다는 점에서, 군인보다 더욱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다.

“폭탄 걸은 거를 하도 많이 터자(터뜨려) 노니까 냄새가 그케 나고 눈도 못 뜨겠고 어떤 때는 숨도 못 쉬겠고 이랬어예... 그래서 마카 이래 따에 딱 엎디리가 땅공기 그것만 마시고 엎어져 있어라카데, 우리는 그 때 섬에 있었어예.”¹³⁶⁾

“[파라오에서] 폭격이 심해 의사와 간호부와 헤어져 이와야마로 피난갔다. 먹을 게 없어서 냇가에 있는 커다란 달팽이를 먹었다. 그곳 사람들은 독이 있다고 먹지 않았다. 나중에는 도마뱀과 쥐도 산 채로 잡아먹었다. 어느 날 밤에는 군인이 준 항고(일종의 취사도구)에 쌀을 몇 줌 꺼내서 주위를 더듬거려 물을 붓고 불빛이 안 보이게 밥을 하다가 폭격을 당했다. 그 밥을 들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아침에 보니 밥이 시뻘겟다. 사람이 죽은 핏물을 부은 것이었다.”¹³⁷⁾

“그 때는(2차대전 말기를 뜻함) 미국하고 전쟁하게 됐으니까, 미국 사람이 큰 폭탄을 싣고 오지. 그러면, 하늘이 까매, 쪽쪽쪽쪽. 낮에는 가다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똑바로 떨어지면 내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봐서 저기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내한테 떨어지니까 피하라 카는기라. 그러니까 그런 피하라 카는기라.”¹³⁸⁾

“나중에는 인자 시내에서 불이 막 나가꼬는... 군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고르코(그렇게) 해방이 되었어요.... 거 중국 사람들이 해방 막 되고는 지들한테 죄끔 함부로(나쁘게) 현 사람이며, 막 곡갱이를 가지고 와서, [위안부들을] 그냥 콕콕 찢러 죽여. 도끼면, 도끼, 뭐 낫이면 낫, 뭐 창이면 창, 뿔이던 콕콕 찢러죽여.”¹³⁹⁾

이러한 증언들은 조선인 ‘군위안부’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민간인들의 경우보다 가혹한 처지에 빠져있었음과 전쟁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합군의 폭격이나 전투 중에 일본군 ‘위안부’

135) 송신도의 증언 (송신도 소장, 2000:13).

136) 신탄연의 증언 (증언 3집, 1999:155).

137) 이상옥의 증언 (증언 1집, 1993:194).

138) 김창연의 증언 (증언 4집, 2000).

139)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제국정부와 군대가 이러한 전쟁 중에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음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그 구성원에 의한 살해의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경우의 죽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살해 및 대량학살(Mass Killing)

이러한 전반적인 생명의 위협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 '위안부'들은 폭격에 의해 살해되거나 대량 학살에 의해 죽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어느 날 지하 방공호에 내려가 있었는데 폭격을 당해 짐이 내려앉았다. 방공호 위로 흙이 무너져 내렸다. ... 그 폭격으로 위안부로 있던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한 박씨가 죽었다.”¹⁴⁰⁾

“폭격을 당해 엎드렸다 일어나 보니 옆에 있던 수스랑이라는 언니가 목에 총을 맞아 죽어있었다....밤에 가다 공습을 만나면 배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러면 무조건 타타타타 바다에 쏘아대곤 했다. 그리고 아침이면 바다는 온통 새빨강게 변해 있었다. 달성 권번출신(함께 대구 달성지역에서 잡혀간) 언니들은 거의 모두 죽었다.”¹⁴¹⁾

“배를 타고 일주일쯤 나와서의 일이었다... 배가 어뢰를 맞은 것이다... 물이 쓸어들 치는데 광주 여자 하나가 배가 터져 너털너털한 상태로 물에 떠내려갔다. 그 사람은 임신 중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여자들이 쓸려나갔다. 아

이러한 학살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그 정의상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일본정부가 '군대' 문서를 보유하고 은닉하고 있는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30) 다dias포라(diaspora), 가족파괴 (번역자들에게: 이하에서 검은 글씨의 부분 역시 지난번과는 그 내용이 다소 바뀌었음. 꼼꼼한 대조 필요)

이렇게 강제 동원에서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여성이 당한 피해는 다층적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안부'의 연행은 수단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뿐 그 본질은 일본 식민주의 권력에 입각한 식민지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강제동원은 그 대상 여성에게는 자신의 고향과 나라로부터 원하지 않는 이탈, 즉 다dias포라라는 또 다른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패전 이후에 전장에서 방치되어 한국에 돌아올 방법을 잃은 사람들 역시 다dias포라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들 '위안부' 여성의 가족이 파탄되어 있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중의 하나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 가족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그 많은 고통과 죽음을 넘어 살아온 여성들이 돌아갈 '가족'은 한국에 없었다.

증언집들을 참고로 할 때,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들은 부산으로 끌려간 윤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 여성이 연행된 장소는 일본, 대만, 사할린,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버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팔라우, 트럭섬, 사이판, 괌, 파라오, 파푸아뉴기니아와 같은 태평양 도서지역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실로 "일본군이 싸운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부 소녀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실감케 한다.¹⁴⁵⁾ 이것이 이들 여성에게는 자신의 고향과 땅이라는 근거지로부터의 '뿌리뽑힘'과 추방을 의미한다. 이 결과 많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장소의 물정을 전혀 몰라 도주의 의미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시에도 대다수 여성들은 이국 땅에서 방치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패전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곳에서 살거나 죽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1996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이남희 (훈할머니, 증언 3집 참조)와 현재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인 전 '군위안부'들의 존재가 이런 유추를 입증하여 준다. 현재, 이름이 밝혀진 중국 거주 옛 '조선인' 위안부가 30명 정도를 헤아린다. 이들은 중국으로 끌려가서 1945년 이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¹⁴⁶⁾ 이들 생존자

144) 김창연의 증언 (증언 4집, 2000).

145) Psychological Warfare Team, *United States offices of War Information*, 1944 참조.

146)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 정신대 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994: 6-7 참조.

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하여도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그 나라에 근거지를 두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남희 (훈할머니)를 면접하였던 정리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향에 대한 불분명한 기억, 무엇보다도 자신이 철이 들어서까지 사용했던 말과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잊어버린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가 군‘위안부’ 정책의 만행을 충분히 고발하고 있다.”¹⁴⁷⁾

중국으로 끌려갔던 최갑순은 두부 장사 등을 해 가며 걸어서 한국에 귀국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그녀의 증언은 귀국 과정 자체도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증명한다.

“말도 못 혀, 나오면서 사년을 걸려 나오면서, 논 밭에서 [사람이] 죽으면 눈에 파묻혀서 죽고, 여름에는 그냥 밭에서, 돼지고 개고 그냥 뜯어먹고 죽으면, 그런 꼴을 보고 [돌아왔어].”¹⁴⁸⁾

다른 한편, 이렇게 어려움을 넘고 넘어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 마땅히 돌아갈 사회적 장소가 없었다. 그것은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간다고 해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것은 많은 ‘위안부’ 가족들의 경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이 질병 징용 등으로 납치되고 사망하며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가족 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언니 하나에 남동생 셋이 있었던 김끝순(가명) 가족의 경우가 그 중의 한 예이다.

“동생 둘은 저 만주로 워신 공장으로 징용 가고 했지만도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못 하겠습디더, 동생들은 다 죽었지예. 그때 징용 가서 죽고 일본군에서 죽고 다 안 죽었습니꺼. 동생 서이 다 죽었어예. 다 죽고 이제 내 하나 남았다 카니꺼네. 언니도 그 때 일본서 나와서 계속 한국에 있다가 죽었어예.”¹⁴⁹⁾

이외에도 ‘군위안부’를 두었던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함께 안고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예를 볼 수 있다.¹⁵⁰⁾ 둘째, 가족이 존재한다 해도 자신의 ‘군위안부’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며, 자신이 가족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을 만나기를 기피하였다. 혹은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가족이 여성들을 쫓아버린 경우도 흔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위안부’ 경험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희생존자 ‘위안부’들에게

147) 이남희의 증언, (증언 3집, 1999: 41).

148) 최갑순의 증언 (증언 4집, 2000).

149) 김끝순(가명)의 증언 (증언 3집, 1999:243-244).

150) 김소란의 경우,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1999:62-63), 심달연의 경우에도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험을 하였다(1999:168 참조).

의지하고 교류할 집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후의 빈곤 및 사회적 소외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위안부' 피해의 깊고도 장기적인 피해의 지점을 보여준다. 다음은 고(故) 강덕경의 증언이다.

“(위안부 시절 마지막에 임신한 아이를 낳아서)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애까지 딸린 그 꼴로는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는 고아원에 맡기고) 초량에 있는 식당에 서 일하면서, 일요일마다 고아원으로 아이를 만나러 갔다...어느 날 가보니 내 아이의 옷을 다른 아이가 입었길래 알아봤더니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 때 그 애는 네 살이었다. 그리고 나는 일생동안 결혼하지 않았다.”¹⁵¹⁾

151) 강덕경의 증언 (증언 1집, 1993:283).